

광주시향 지휘자 연임 놓고 갈등 고조

단원 98% 반대 정의행위까지 언급... 문예회관장 퇴진 요구도 광주시, 철회 의사 없어... 21일 '호두까기 인형'은 예정대로 공연



‘꽃발, 여성성에 관한 연구’

융합·통섭... 파격적 예술을 향해

‘뉴 웨이브’전 24일까지 미디어큐브 338

융합·통섭은 미술계에서도 화두다. 특히 장르를 아우르면서 파격적이면서 실험성이 풍부한 작품을 선보이는 젊은 작가들이 적지 않다.

광주문화재단 후원으로 빛고을시민문화관 미디어큐브 338에서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뉴 웨이브-아트 콜라보레이션’전은 장르간 융합을 시도한 젊은 작가들의 실험성을 드러내는 전시다.

미디어아티스트로 ‘비빔밥’팀으로 제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했던 박상화씨가 기획한 전시에는 조선대와 목포대 미술학과 학생 40여명이 영상 미디어에 회화, 디자

인, 공예 등을 아우르는 12개의 융합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4인4색, 21세기 단군신화 패러디’, ‘술에기, 쓰레기 연구’, ‘꽃발, 여성성에 관한 연구’ 등 튀는 작품도 적지 않다. 캔버스나 붓이라는 정통 서양화의 틀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만들어내는 작품 곳곳에는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상상력이 묻어난다.

뿐만 전시에 머물지 않으려고 예쁜 작가들의 흔적, ‘꼭 장르간 융합을 힘들게 시도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진지한 고민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문의 062-670-7912.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광속씨 도자기 작품’

전통공예 멋스러움을 작품으로

‘영·호남 교류’전, 21일까지 은암미술관

은암미술관은 21일까지 ‘제2회 영·호남 도예가 교류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움과 기능적인 면을 갖춘 도예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22명의 작가들이 내놓은 전통 공예품이나 생활자기 등 작품 곳곳에서 작가의 공들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두 지역 작가들은 영·호남의 문화 교류를 위해 추진한 전시로 단 한 차례의 교류전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내년에는 부산에서 교류전이 열린다. 062-231-5299.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향 단원들이 17일 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 반대’를 분명히 하며 정의행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도 원칙적으로 ‘연임 철회’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다만, 광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이날 시 관계자, 단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등 중재 역할을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 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10일 문서를 연임을 통보받았으며 현재 정식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다. 루트비히의 새로운 임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다.

▲80명중 78명 반대
광주시향 단원 80여명은 17일 오후 광주 문예회관에서 현 지휘자 연임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 철회를 주장했다. 단원들은 지난 11일 루트비히 등이 참여한 지난해 정기결정 결과 단원 16명에게 내려진 ‘부적격’ 판정이 불공정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에서 승소한 후 공식적으로 연임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원들은 시 측에서 루트비히 연임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성과 부분과 관련, 초대권 발급 건을 그대로 관객 수로 단순 계산하는 등 공연 횟수, 관람객 수, 자립도 증가 등에 허위 사실이 있고 부정적인 관객 감상평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단원들이 재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문예회관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연주 단원 80명 가운데 78명이 연임 반대에 서명했고, 지휘자의 동생과 여자친구의 출연 문제는 단순히 가족 출연이 문제가 아니라 역량이 떨어지는 가족을 출연자로 초청, 항공료 등 세금을 지출한 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이날 연임 철회와 함께 이같은 사태를 유발한 광주문예회관장의 퇴진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홍인화)는 이날 시의회에서 단원 대표와 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지금까지의



광주시립교향악단원들은 17일 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크리스티안 루트비히 상임지휘자 연임 철회를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의견을 반복하며 별 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간담회 후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 평가 과정을 거칠 것 등을 행정부시장에게 건의했고 현재 시장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다.

▲광주시의회 중재 나서
광주시향은 오는 21일 시립무용단과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예정돼 있다. 당초 루트비히와 공연을 진행할 수 없다며 객원 지휘자를 요청하고 연습 불참 등도 고려했던 단원들은 일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는 루트비히가 참여하되 18일부터 연습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지난 1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정의 조정 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절차를 진행하며 정의의 행위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는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따라 연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 난 상황을 반복하는 데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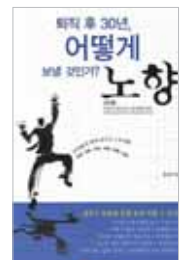
또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결국 정기결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지휘자 길들이기’ ‘제법그릇 챙기기’ 등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행복한 노후를 꿈꿔라’ 홍성열 ‘노향’ 출간

퇴직 후 어떻게 살까,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만은 노후에 별 대책 없이 그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한 사람들 적지 않다.

홍성열씨가 쓴 ‘노향(老鄕)’은 너무 이른 듯해 체감하지 못할 것 같은 40~50대를 위한 노후 설계서다. ‘노향’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하며 추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에서 저자가 붙였다.

‘퇴직 후 30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바람직한 삶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은퇴는 있는가’, ‘노후생활에 대한 다른 생각’, ‘노향, 6연과 함께 만드는 노후생활’ 등 3부로 나눠 중년에 준비해야 할 항목을 일러준다.

저자는 특히 혈연, 지연, 학연에 직장 생활이나 업무 관계로 맺은 사연, 동호회 등으로 맺어진 지연, 그 외 인연으로 맺어진 지연을 통한 6연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글로벌문화원·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해 최고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온라인 서점 인터넷코드는 독자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으로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독자 투표를

벌인 결과 총 51만5475건 가운데 헤민 스님의 책이 4%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안철수의 생각’(1만 7007표)이었다.

올해 ‘최고의 작가’로는 19%의 득표율을 올린 고은 시인이 선정됐다. /연필뉴스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새날학교와 함께하는 사랑 나눔 음악회가 오는 22일 오후 3시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 C.N.피아노(회장 정환숙)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한 음악회다.

새날학교는 국제결혼자녀, 유학생, 외국 인근로자, 새터민 자녀들 교육을 위해 교직원 자선교회와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새터민센터 등이 협력해 설립한 학교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흥겨운 캐럴을 작곡가 임현진이 두대의 피아노로 편곡한 곡들을 연주한다. C.N.피아노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번 공연의 출연자는 이혜경·이민진·이현주·박행숙·장춘화·동수정·조선미·유정아씨 등이다.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공연 후 모금을 통해 작은 정성을 모은다. 광주C.N.피아노는 해마다 새날학교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i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주형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주형 맛집**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맛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